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社說 日本商品의 受難
米國、濠洲의 關稅引上에 對하야

一

一九二九年以來 經濟恐慌은 世界的으로 深刻하야 各國國民生活은 날로威脅을 늣기게됨에 따라 一九三二年頃부터 列强 即 日英米佛等 主要國家를中心으로 所謂 블럭經濟가 擡頭하게되엇든것은 萬人이 周知하는바이어니와 이 블럭經濟의 出現에 依하야 廣濶한植民地와 多數의從屬國을가진 英佛米諸國은 大端히有利한 立場에 잇슴에反하야 日本과가티 比較的 植民地가 적고 販圖가 너르지못한 商工國은 甚히 不利한 立場에서게됨은 勿論이엇다。그러나 世界的恐慌期인 過去五六年間 日本의 對外貿易은 블럭經濟의 産物인 列國의 高率的 關稅障壁을 無難히 突破하고 逐年 對外貿易의 躍進을 보게되야 英米諸國은 驚駭하야 日本商品의 威脅을늣기고 보다더 高率的 關稅로 日貨侵入防止에 努力하고 잇다。日本商品이 不利한 立場에 잇슴에 不拘하고 이가티 躍進하게되는 理由는 勿論 物價騰貴에 同伴치안는 勞賃低廉에 依한 生産費의 極少및 圓貨價値의 低下等 諸般原因으로 外國商品이 到底히 競爭할수업는데 크다란 武器가 잇는것이다。

二

米國政府는 當面한 恐慌克服의 一策으로 國內産業을 復興식히기爲하야 日本綿布에 이미 相當한 高率的關稅를 賦課하엿스나 昨年末에다시 關稅를引上하려하므로 日本 綿布業者及 輸出業者는 對米輸出을 自發的으로 制限한다는 紳士協定締結로써 一時 緩和되엿던바 最近 日本綿布進出의 激增에 由緣하야 米國政府는 紳士協定과가튼 抽象的協定에 滿足치안코 輸入數量을 一個年에 三千六百六十萬平方碼로 制限할것을 提議하게되엿스므로 日本政府는 이것을 折衷緩和하기爲하야 그間 齋藤駐米大使로하여금 日米綿布交涉에 當케하엿스나 米國側의 强硬한 態度에 不得已 去二十一日로써 會談은 決裂되엿는데 會談決裂即日로 루-즈벨트大統領은 日本綿布輸入防止를 目的으로 平均 四割二分의 大幅的關稅引上을 公布하고 六月二十日부터 此를 實施할 旨를 發表하엿다。여기 對한 日本朝野의 不快한 感情은 말할것도업고 一部에서는 對米通商擁護法發動을 物議하던 그 中에 불길은 따시 濠洲로 飛火되엿다。

三

日本의 對外貿易發展上 가장 强大한 敵은 英國이다。英國은 一九三二年 오타와會議를 爲始하야 英帝國의 廣濶한 植民地市場으로부터 日本商品驅逐의 烽火를들고 濠洲、加奈陀、印度、埃及、南阿聯邦等으로하여금 日本商品 特히 日本綿布의 輸入防止를 爲하야 高率關稅를 賦課케하엿슬뿐아니라 中國가튼 地域에와서까지 여러가지 策略으로 日本商品을 驅逐하고 自國勢力을 擴張하려함은 周知의 事實이다。그런데 日濠貿易關係에잇서서는 日本은 濠洲로부터 多量의 羊毛、小麥을 輸入하게되므로 日本側에 片貿易이되엿슴에 不拘하고 日本綿布에 對하야 濠洲政府는 이미 相當한 高率關稅를 課하엿섯다。그러나 濠洲政府는 여기에滿足치 안코 다시 日本綿布에對한 關稅引上을 꾀하고잇슴으로 日本政府는 此事態를緩和하기爲하야 交涉中이던바 去二十二日 會談進行中에 突然 人絹에對하야는 四十割 綿布에對하야는 十割이라는 輸入禁止的關稅引上을 斷行하엿스므로 日濠會談은 決裂되고 方今 日本政府當局은 濠洲에對하야 通商擁護法을 發動하기로 決定한後 具體案을 作成하는中이다。

四

米國이나 濠洲는 合하면 對日貿易에잇서서 輸出超過國들이다。米國棉花의 主要輸出國은 日本이오 濠洲 羊毛의 主要輸出國도 亦是 日本이다。日本은 以上兩國으로부터 以上商品을 大量輸入하는 關係上 昭和十年中 對米貿易에잇서서 二億七千四百萬圓의 入超를내엿고、對濠貿易에잇서서는 昭和八、九、十年 三個年間에 入超 四億五千萬圓에 達하엿다。이가티 日本은 米濠兩國에對하야 入超的地位에잇다는 것이 通商擁護法發動上 크다란 武器가되는것이다。그러나 [illegible] 日本의 對外輸出의 大宗은 亦是 綿絲布이오 [illegible] 米國棉花는 國內紡織業의 [illegible] 濠洲羊毛는 英本國의 [illegible] 出로 各各 그 消費市場을 發見할수잇다는 이곳에 日本의 弱點이 잇는것이다。그리고 今回 米濠兩國의 關稅引上에잇서서 特別히 注目되는點은 北中密輸問題로 英米兩國이 日本에 抗議한 事實이라든가、米濠兩國의 關稅引上이 그時期를 가티한 事實等으로 보와 그背後의 政治的關係가 濃厚히 엿보인다는 點이다。

對中經濟援助等 日本側斷然拒絶
리丝英經濟使節의 要望에 對한 政府當局의 方針大要

【東京電話同盟】英國의 遣中經濟使節 리-드로스氏는 近近 歸國의 途에 오르기로되엿스므로 駐日大使 크라이브氏及 駐中大使 카드간氏를 通하야 日本當局間에 對中援助의 具體案에 關하야 會談을 行하고십다는 旨를 要請해왓다 同氏는 夫人及 隨員同伴 三十一日 上海發 엠프레스오브·카나다號로 訪日하야 約二週間 滯在하고 그동안 有田外相 寺內陸相 馬場藏相을 爲始하야 日本朝野의 關係者와 會談을 遂할 豫定인데 同氏는 在中八個月동안에 南北中國을 無漏觀察하야 英國의 對中政策活動再建을 畫策하야 相當한 具體案을 어덧스므로 前回 訪日한때의 公約에 따라 對中援助에 關한 英國側의 具體案을 提示하고 日本의 協力을 求할것으로 信憑된다 그런데 리드로스氏가 考究하고잇는 具體案은

一、北中의 所謂密輸入取締에 日本側의 協力을 要望하고 그 代償으로 英國側은 砂糖、人絹等에 對한 中國의 現行高率關稅引下에 同意할것

一、幣制改革及 對中借款에 日本의 協力을 求할것

인 模樣인데 日本側으로서는 如左한 見地에서 英國側의 提案을 一蹴할밧게업다고 하고잇서 리드로스氏의 訪日에 依하더라도 中國問題를 中心으로한 日英關係에는 아모런 打開도 期待할수업다고 보고잇다

一、密輸入問題

(가)英中兩當局에서는 北中密輸入의 原因은 稅關取締의 官吏에게 武器携帶를 禁止한데 잇다고 指摘하고잇스나 北中의 稅關吏의 武器携帶禁止는 北中停戰協定에 基한것이오 日本側이 故意로 密輸取締를 妨害하고잇는 事實은업다

(나)特히 中國側이 密輸問題를 必要以上으로 問題視하고 國際宣傳을 行하는것은 冀東政府를 撲滅케하려는 政治的 意圖에서 出發한것으로 冀東政府의 存在를 絶對的으로 必要하다고보는 日本政府로서는 英國側의 提案에 應할수업다

(다)그러나 獨立政權이 存在하는以上은 西南政權及 外蒙政府와 同樣으로 獨立關稅를 가질것은 當然하야 如斯한 稅率에 依한 日本商品의 輸入은 合法的이다

一、經濟援助問題

(가)幣制改革에 依한 中國의 經濟改革이 成立되면 日本은 아에 協力할 方針이던바 英國側의 提携에 對하야 旣設事實을 作成한以上 또 米國과의 問題에 弗貨와의 聯携를 策하고잇슴과如한 狀態로는 日本은 協力할수업다

(나)對中借款은 부질업시 軍部及 一部政權의 利益을 資하는데 不過하므로 現在로는 反對할밧게업다

國府、積極的으로 北中攪亂을企圖
梅津、何應欽協定을無視하고
學生抗日運動猛烈化

【天津三十日發同盟】最近 平津間에 不可解한 反日運動이 擡頭하야 二十八日 學生運動에는 『抗日이아니면 人間이아니다』『抗日에는死도 두려워하지안는다』等의 諸句를 公公然히 使用하야 市中을 爲始하야 電車의 橫側에 써부첫던바 依然 그手段은 드되어 惡化하야 今回의 軍用列車爆發로써 出現되엇다 客觀的情勢에 잇서서 南京政府는 山西에 共産軍을 侵入케하고 이를 操縱하야 北中攪亂을 圖하고 山西의 中央化에 成功하엿스므로 一段 陝西에 國軍을 派遣케하는 行爲를 取하게하고 北中攪亂의 實現的行爲로 學生層을 煽動하고잇다 이는 冀察政權과 日本側과의 離間 策動이라고 볼것인바 藍衣社의 撤退를 要하지 아니치 못하게된 梅津何應欽協定을 無視하는 行爲로서 最近反日行爲는 거의南京政府指令下에 動하고잇는것은 明白한때 梅津、何應欽協定의 精神을無視한 行爲라고 보지안흘수업는것이라고 一般이 推移를注目하고잇다

淸華大學等 同盟休校開始

【北平三十日發同盟】國立淸華大學은 三十日부터 五日間 또 國立北平師範大學은 三十日부터三日間 同盟休校키로 決定하고 即時 實行에 들어갓다 同時에 宋哲元氏는 直系第二十九軍에 對하야 抗日을 勸告한 決議文을 發表하엿다 學生運動은 益益 惡化될 徵兆가잇다

天津市長 海關監督等免職

【北平三十日發同盟】冀察政務委員會는 二十九日夜 突然 天津市長蕭振瀛氏及 天津海關監督林世則氏를 免職시키기로 決定하엿다 但 아직 正式으로 發表되지안코 後任도 未定이다

對濠擁護法發動
來月十日까지에發令

【東京電話同盟】濠洲에 對한 通商擁護法發動에 關한 關稅調査委員會는 前回에 繼續하야 三十日午前十時 大藏省中央會議場에서 開催하고 第一回幹事會에서 決定한 羊毛小麥에 對한 輸入許可制實施 牛皮牛肉等의 商品에 對한 禁止關稅設定等에 關하야 이것의 文化를 諮하엿다 그런데 來週中에 委員會를 開催하야 十日前後에 勅令을 公布하고 드되어 濠洲에 對하야 通商擁護法을 發動하기로되엇다

現內閣의 標榜인 革新的政策樹立
來週閣議부터 懇談進行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去二十九日의 閣議에서 벌서 十二年度豫算編成에 關하야 協議하엿는데 다시 이와 關聯하야 來週閣議에서 現內閣이 標榜하는 革新的政策樹立에 關하야 懇談하기로 되엇다 그런데 廣田首相으로서는 此等의 基調가되는 根本方針으로

一、國防의充實
一、産業經濟의發展
一、國民生活의安定

에 重點을두고 議會의 論調를 尊重하야 十二年度豫算中에 具體化를 期하기로되엇는데 이와 幷行하야 貴衆兩院으로부터 建議案及 決議案으로 出現한

一、貴族院改革
一、議會制度의改正
一、衆議院議員選擧法의改正

에 關해서는 政府는 가장 愼重을 期하야 法制局、調査局及 內務省에서 各其準備的研究를 逐한後 近近 三大調査會를 設하기로되엇는데 廣田首相은 此等各改革의 案이 貴衆兩院自體로부터 自發的으로 出現한데 鑑하야 兩院內部에서 改革할 點에 關하야 各其實行性잇는 具體案이 作成되어야할것을 强調하고 이內部的意見을 尊重하야 이에 某程度의 若干修正을 加하기로 하야서 成案을 엇기를 期하고잇다 그리고 廣田首相의 態度는 끗까지 政府의 專擅을 避하고 經驗者인 兩院議員의 意見을 尊重함에잇서서 新設될調査會構成에서는 그主力을 議員에 置하려는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議會制度改正에 關聯하야 會計年度變更도 首相은 主旨에잇서서 賛成이므로 明後年度부터 實施할것을 目標로 近近 馬場藏相과 協議를 進行하기로되엇는데 그推移는 極히 注目되고잇다

移民會를開催코
滿洲移民根本方針樹立
拓省에서目下準備中

【東京電話同盟】拓務省은 海外移民政策에 關한 諮問機關會議 拓殖移民會의 組織에 特別議會의 協賛을 어덧스므로 目下 新京에서 籌議를 進行中인 滿洲移民會議와 呼應하야 中央의 滿洲移民根本方針을 樹立하기爲하야 六月初 그移民會를 開催하기로되어 準備를 進行中이다 그런데 昨年度移民會에서는 十五個年에 十萬家族을 移植할方針이던바 最近新京移民會議에서는 二十個年 百萬의 移植案이 樹立되려는 實情에 잇스므로 이에 應할必要에 切迫되어 拓務省은 目下 滯東中인 滿洲拓殖會社理事 木下通敏氏를 招致하야 入江次官、高山拓務局長及 大野東亞課長等과의 사이에서 數回에 亘하야 會合한結果 大體의 成案을 엇게되엇는데 最後案의 決定에는 移民會의 意向을 徵하야 滿鐵、關東軍、滿洲國、陸海軍等의 諒解를 求할方針이다

外相聲明發表說
外務當局全然否定

【東京電話同盟】國民政府 外交部長 張群氏의 外交演說에 呼應하야 有田外相은 六月一日 重大聲明을 發表할것이라고 傳하고잇는데 對하야 外務當局은 三十日 如左히 言明하엿다 外務省으로서는 對中政策에 關하야 聲明을 行할생각은 全然업다 日本政府로서는 日中關係는 從來보담一步를 進하야 現實的 또는 平和的으로 解決하고십다는 熱意를 가지고잇스나 이는 實質的解決을 期할것이오 聲明等의 形式은 避하여야할것이다

陸軍改編斷行!
輜重、工兵、氣球隊를聯隊로擴大
自六月一日逐次實施

【東京電話同盟】陸軍省에서는時局에 鑑하야 全國의 輜重兵、工兵各大隊、氣球隊等을 全部聯隊로하기로 決意하고 關係豫算도 協賛을 經하엿스므로 三十日 閑院參謀總長宮殿下와 寺內陸相으로부터 上奏御裁可를 仰하야 同日午後四時 陸軍省에서 如左히 發表하엿다 이 改正은 六月一日附 官報로서 公布하고 逐次 實施할것이다

◇陸軍省公表=今日 上奏御裁可를 得한 軍令關係의 事項은 第六十九議會에서 成立한 豫算으로서 實施에 着手하려고 編成의 改正、이것의 實施要領等을 主로한것이다 今回의 編成改正은 昭和十一年度 以降 繼續的으로 實施할것으로 軍隊의 內容을 整備하기爲하야 全般으로 人馬及 裝備를 增加하야 所要의 改編을 行하고 또 砲兵工兵及 輜重兵等의 特別大隊及 氣球隊等의 名稱은 全部 聯隊로하기로 되엇다 航空關係에잇서서는 昨年度末 旣定된 緊急充備를 繼續하는外 氣球隊를 航空兵科로부터 砲兵科中에 너키로 改正되엇다 官衙로서는 이編成을 能率的으로하야 힘써 人員을 減少할 方針으로 必要한 改正을 加하엿다 學校에 關해서 人的要素의 充實을 圖하기爲하야 各學校에도 모다 職員以下를 增加하야 內容을 整頓하고 學生을 增加하는等 必要한措置를講究하기로되엇다

北平의 英兵二名
日本人數名을殺傷

【北平三十日發同盟】二十六日突然 發生한 英國兵士의 日本人殺傷事件에 關하야 三十日午後 二時半 大使館當局은 談話의 形式으로 如左히 發表하엿다 五月二十六日深更 當地에서 英國兵士의 日本臣民에 對한 暴行殺傷事件이 連續發生하엿다 即同日午後十二時前後 三元庵地域의 朝鮮人바-數個所에서 二人의 英國兵士가 日本內地人一名及 朝鮮人一名을 襲擊負傷케 하고 또 朝鮮人男二名及 女一名도 毆打暴行을 입엇는데 또 翌二十七日午前零時半 哈德門街日淸洋行附近의 街上에서 日本人二名 佐佐木喜作 目壽雄은 英國兵士二名에게 襲擊되여 佐佐木은 現場에서 殺害되엇다 前後事情及 關係各證人의 陳述을 綜合하건데 前記數個의 事件은 同一人이 行한것으로 推定된다 佐佐木은 當年二十五歲의 滿洲國軍政部職員으로 同僚의 目君과함께 今月二十六日早朝 來平하야 東安街의 아스카룸호텔에 宿泊하고 兩名은 二十六日午後零時半부터 哈德門大街의 銀座카페에서 飮食하고 二十七日午前零時頃 銀座카페를 나와 歸路하는途中 日淸洋行前에 到着하자 英國兵士二名이 中國人人力車夫에게 暴行하는現場을 目睹하고 구경하던中 突然襲擊을바더 目君은 二百米를 避하엿스나 佐佐木은 逃走하지안흠으로 되도라가보니 佐佐木은 道路西側에서 人事不省이 되어잇는것을 發見하엿다 同時에 現場에서 英兵士의 服裝의 一部라고보이는 絲色布帶一條가 遺棄되어잇는것을 拾得하얏다 佐佐木의 死因은 解剖한結果 右顳顬의 强打에依한 頭蓋骨折及 腦內出血로 判明되엇다

英大使館에 嚴重抗議

【北平三十日發同盟】二十六日深更當地에서 發生한 英國兵士의 日本人殺傷事件에 關하야 大使館武藤一等書記官은 三十日午前十一時半 英國大使館에 赴하야 코안一等書記官에게 對하야 日本側의 權利一切를 保留한다고 該事件을 報告하고 또 遲滯업시 犯人搜査要求를 提出한後 交涉을 開始하엿는데 推移는 자못 重大視된다

巴里大盟罷
參加者八萬突破
急速解決은困難
雇主側은爭議團의工場占據를理由로 妥協會合出席을拒否

【巴里二十九日發同盟】金屬工의 罷工에 端을 發한 巴里市中의 鋼鐵工爭議는 佛國當局의 必死의 調停에도 不拘하고 各自動車工場各 機械工場을 爲始하야 軍需工場、航空機工場、土木事業等 産業各方面에 亘하야 波及되어 二十九日 罷業人員은 드되어 八萬을 突破하게되엇다 프로소아르 勞働相斡旋의 結果 雇主側과 爭議團代表는 二十九日午後四時부터 會同하야 妥協條件에 關하야 協議할 豫定이엇으나 雇主側은 爭議團의 工場占據를 理由로 參加를 拒否하엿기때문에 罷業의 急速解決은 絶望視되게되엇다 爭議團은 一旦職場撤退에 同意하엿는데 二十九日 未明에 至하야 作戰을 變更하고 雇主側이 要求를 原則的으로 承認을 賃金을 與하지안는以上 끗까지 職場을 死守할 方針이라고 한다 로노自動車工場만은 爭議團이 工場으로부터 速時撤去하고 勞銀增額의 契約等 妥協이 成立되어 爭議團은 六月二日부터 就業하기로 決定하엿다

【巴里卅日發同盟】佛國政府는 廿九日夜緊急閣議를 開催하야 巴里勞働爭議에 對한 對策에 關하야 協議를 遂하얏는데 사로우首相을 爲始하야 社會黨首領부룸氏等의 熱烈한 調停에도 不拘하고 二十九日 深更에 至하여도 解決될 曙光을 發見하지못하엿다 罷業範圍는 刻刻擴大될 傾向을 示하야 二十九日夜半 四十四、罷業人員約九萬人에 達하엿다 罷業은 이미 飛行機製作會社 彈藥會社等 軍需工場의 核心에 及하엿는데、此等工場은 모다 爭議團에 占據되어잇기때문에 佛國政府當局은 苦慮의빗치 濃厚하다

【巴里廿九日發同盟】罷業에 參加中이던 루노自動車工場勞働者는 工場側과 妥協이 成立되어 六月二日 一齊히 就業하기로 決定하야 途는 多少光明을 認定하게되엇다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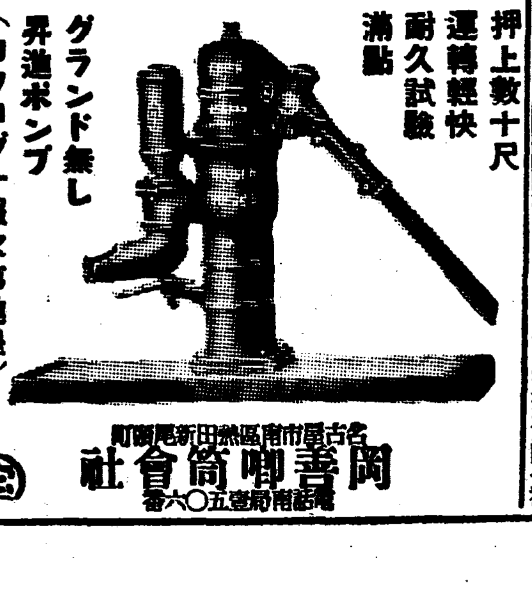
◀下飯坂元氏(慶尙北道警察部長) 新任人事次來社
◀下村進氏(新任京畿道警察部長) 三十日午後一時五十分着任
◀伊達四雄氏(新任慶北知事) 三十日午後二時發赴任
◀山本義一郞氏(新任全南警察部長) 同上
◀上內彦策氏(新任平南知事) 三十日午後三時三十分赴任
◀伊藤泰吉氏(新任警務課長) 三十日午後三時二十分着任

심히 模糊한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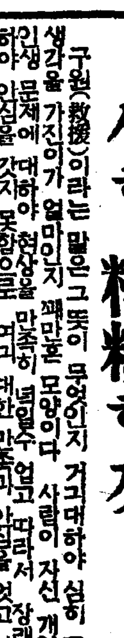
구원(救援)이라는 말은 그뜻이 무엇인지 거긔대하야 심히 모호한 생각을 가진이가 얼마인지 퍽만흔 모양이다 사람이 자신 개인이나 인생문제에 대하야 현상을 만족히 녁일수 업고 따라서 장래에 대하야 안심을 갓지 못함으로 여긔 대한 만족과 안심을 엇고 잇다가 마츰내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과 안식의 지경으로 드러갈것 가튼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그러한 구원을 엇을수 잇을것이에 대하야 네가지 사람의 대답이 잇는것이다

첫재는『정직하고 단정하야 네 도리를 다하라』함이오 둘재는『모든 일에 실수업시 행하고 할수잇는 대로 모든 사람을 대접하면 천국에 드러갈수 잇다』함이오 세재는『할수잇는 대로 올흠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함이오 넷재는『맹세하지 말고 거즛말하지 말고 무엇이던지 수치를 밧을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된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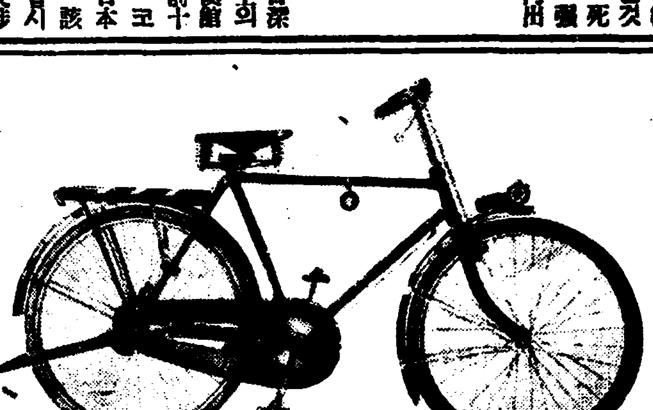
이 네가지 대답은 압흐로 그와 가티하면 되겟다는 말이지만 과거에 지흔 죄는 어찌하려느냐 이에 대한 해답은 또 달니 차저보아야하겟다 성경에 일으기를『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엿다』하엿으니 잘잘못을 먼저 과거에 지흔 죄를 대속하야 청산하고 압흐로 잘하려면 힘을 준비하여야 하겟다

特許 流泉ポンプ
押上數十尺 運轉輕快 耐久試驗 滿點
グランド無し 昇進ポンプ
(カタログ一報次第進呈)

名古屋市南區熱田新尾頭町 岡田唧筒合資會社 電話南(壹)五〇六番

名古屋 メリヤス 雜貨 格安品
弊店은 普通問屋과달너서 各製造家로브터 直接品을 一手引受하야 安價로送付하여드림。店名捺印者에限 商品目錄進呈
莫大小、雜貨、各種 二等品 端物專問卸
梅村新太郞商店 名古屋市西區則武町牛島 振替名古屋一三三九四七番


五個年間保證 絶對責任付 品質優良 體裁優美 大好評의 萬年筆新製品 高級エボナイト軸 代用金ペン付 クローム裝具安全インキ止式 宣傳發賣中 原價와가튼價格으로 提供、御希望者는 送料共三錢切手二十枚封入 御申込하라 (一打以上時는 相談에應함)
名古屋市東區池下町一ノ三四 萬年筆專門 みかさ堂 電話東三九二一番

幟 幕 旗
入念 廉價 迅速
服部年國旗店
名古屋市中區砲鉄町三 電話中③二二三九番
商報見積書送呈


絶對良品 新品保證 市價半格保證
놀낼만치 安價한 實用自轉車
五百臺限大投賣! 前後ブレーキフリー式(定價三十五圓) ニウケ、スタンド、半ケース、ベル付組立箱入
(各種價格表進呈)
大特價 一臺十九圓八十錢
●全ケース付…一圓高
●ユースター付…三圓高
●ハンドブレーキ式…二圓八十錢高
注文時에內金 五圓을送付하면 殘額은代金引換으로함、組立箱入荷造料無料、運賃着拂。
참으로 品質의良品、經濟的으로 絶對保證品、流行安價品과는 絶對相違、信用本位의 近藤의 自轉車。信用하시고 注文하시라
各種自轉車卸商 名古屋市東區泉町三
合資會社 近藤鐵商會
送金는……振替名古屋一七三六〇番 電話東(4)〇九〇二番

五月二八日낫부터! 五百年後의地獄 [illegible] 아리랑고개 [illegible] 이罪에울어라 現代劇 野村京一 月宮乙女 主演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第一劇場 五月卅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四十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太平洋斷橫 劍龍之助 完武者三銃士 사랑과光明 "Magnificent Obsession" 映畫의第九交響樂! 꿈속의街路 "If You Could Only Cook" さむらひ 黑川禮次郞 主演
團成社

職員招聘
奮鬪努力의士를求함
履歷書를左記에送附하시라
京城府黃金町二ノ三
昭和生命保險相互會社 京城支部

昭和生命
本社 東京 · 京城

電區撤廢運動側面記 ⑥

賃金區域을撤廢하면 도리여收入은激增

從來의 市外線連絡이 證明

確實한根據가여게잇다!

우리가 경성전긔회사에대해서임금구역을철폐하라고 열심히주창하고잇는것은다시말하면 임금을이느정도까지 내리라는것이다 여제 도탈할바잇섯지만 임금을내리라고 하면 임금을 내린때문에 경성 전긔회사가 경영상 곤난이잇서도 조금니 내려라고는 말할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경성전긔회사가 임금구역을 철폐하야 임금을내리게도 결코경영상 별반타격을 바들것은 업스리라는 어떠한근거를 발견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이것은 전차사업의 상세한내막을 조사하기전에는 정확히말할수는 업슬것이나 여기에우리는 이제 소개한 경성전긔회사영업보고서에의하야 중요한점을 발견할수 잇섯다 그점으로보면 구역철폐에의한임금을 내린다고해도 오히려 리익을 더볼수잇게될것이 아니냐하는관측조차 가능하다

◇

이제 경성전긔회사의 영업보고서에 의하야 보건대 전차와 자동차의 하루평균수입이 오천원대에 이르기는 소화삼년 하반긔부터로 소화륙년 상반긔까지는 별반변동업시 수백원식늘기도하고 줄기도하다가 소화륙년하반긔에는 다시감퇴하여 사천원대에떠러저서 소화칠년반긔까지 사천원대에 잇든것이 소화팔년상반긔부터는 오천원대를 다시회복하엿다 즉소화칠년 하반긔에는 하루평균수입이 사천구백십원이든것이 소화팔년 상반긔에는 오천륙백팔십원으로되여 그간에하루평균 칠백칠십원이늘엇다 그러고 그다음해부터 해마다 상하반긔에 하루평균륙칠백원식 늘어나갓것은 작년소계한바와갓다 그러면 소화칠년까지 전차수입이 늘지못하고 말하자면 정체되엇가려 잇다가소화팔년부터 왜그러케 해마다그처럼 늘어나갓는가하는것은 결코 우연치안흔사실이니 지금우리가 임금구역을 철폐해도 경성전긔의 수입은결코 줄지안호리라는 근거를 여기에 차즐수 잇는것이다

◇

즉 경성전긔회사의 전차수입이 늘기시작한 소화팔년은 어떠한시기이엿든가를 돌아보면 그해사월일부터 경성부에서경영하든 시내뻐스를 전긔회사가 경영하게되엿고 또동시에교외선전차의 임금제도를고치어 시내에서 선교외선으로 또는교외선에서 시내선으로는두구역을 련계하여타게되는 때면은하고 교외선에서 시내선으로가거나 다시교외선으로 려하는때에는 삼입전으로하엿든때이다 이때한임금제도의 개정은 교식적이기는하엿스나 종래 십전을내고 타든것을 팔전으로 탈수잇게되고 종래십오전에타든것을 십일전에탈수잇게되엿것만도 시민에게는 적지안흔 편리이요 또그만큼 부당이덜하여진든것이다 그만큼편리하고 부당이적게되엿따라서 일반의리용이 띄면허젓기때문에 전차외뻐쓰의수입이 훨신더늘어나갓것이아니냐할는것은 누구나상식으로라도 판단할수잇는것이다

◇

이러한수자가 명료히증명하는것이니까 다말할여지도업시 임금구역 철폐가 전차수입에우리한때가 만타는것은 잘알수잇지만은 이것을 다시생각해보면 예계인으로들때에는 임금을 내는것이되여서 전체의수입도감소될것가려 생각하기도쉬우나 그것은결코 그럿치안라 이것은리론뿐만이아니고 선진도시의 사정으로보아도 여게그런모양이며 우리가 당장의 시내사정을생각해보아도 잘알것이다 즉일호구역부근에서 구역을넘어서 멀리가자면 외적엇을생각하면 누구나 도구역임금을 내기실피하야 그러한데가아니면 전차를안타게되는것이 보통이다 이것이만일일구역이 동일하여 도구역는어 한구역으로 된다면 전긔와가를중개은 모다전차를타게될것이니 그만큼전차 수입은 늘어나갈것이 사실이다 이런사정은 생각하기에는 적어보이나 사실에는 큰효과로 나타날것이다 어른뗏비 현제의 수입이배로수입이 더러지지안흘러라고 할수잇슴으로 임금구역을철폐하는것이 올치안는냐고 주장하는바이다 하로지 경성전긔회사가 업무에 공익고관하고 주장하는 (계속)

松林속梨花校庭에 演劇化된半世紀

長安의人氣를오붓하게차지한

五十週年記念祝賀의最終日

우리녀자교육계의 선구자이며 가장완비된 긔관임을 자타가공인하는 리화학당(梨花學堂)이창립오십주년을 마지하여 지난이십팔일 성대한 긔렴식을 시내정동정(貞洞町)리화녀고보뜰에서 거행하고 이어이틀동안이나 성대한 전람회(展覽會)를 개최한것은 당시에보도한바어니와 이와가티 성대한긔렴식의 종막으로삼십일오후두시에는 신축교사봉헌식(新築敎舍奉獻式)과세시부터는야외극(野外劇)을시내 대현정(大峴町)서잇는 녀자전문교정에서개최하엿다 차차로 더위가는여름날 토요일을마지한 시민들은교외산보를 겸하야 이것을 구경하라고 모여들어 가는길에는자동차의 장사진(長蛇陣)을이루고 회장인 학교뜰에는 만여명군중이 욱어진송림속에서 때를기둘두고잇다 송림가운데여긔저긔에서 한적하고 간소한자태를 자랑하는 신축 교사인 보육관(保育館) 긔숙사 (寄宿舍) 가사실습소(家事實習所)의 봉헌식은오후 두시에 교장아펜설라씨의 사회로 시작되여 학생들의 어엽븐 긔렴찬송이 끗나다음 양주삼(梁柱三)씨의 봉헌례문랑독(奉獻禮文朗讀)이잇섯고 김활란(金活蘭)씨의 건축보고와 훌륭한 건축을담당한 강윤(姜沇)씨의표창을하고 학감 서은숙(徐恩淑)씨의 봉헌학교 연혁소개로 봉헌식이 끗나자 정각세시부터 야외극이 시작되엿다 이야외극은 리화 반세긔와 조선교육계에 남겨노흔 가지가지의 력사적사실을 연극화한것으로 「강(江)」이란 제목이 말하는거와가티 길고 욱어진 산봉우리아래를 줄줄 흐르는 한숙기롱이 내중에는 흘르고 또흘러서 큰강이되는것과가티 지금으로부터 오십년전 서력일천팔백팔십륙년오월에 선교사「스크랜톤」부인의 사택에서 단두녀자를 가르치기시작한 조선의 녀자교육──더욱 리화학당은 오늘과가튼 륭성을 이루어 마치 큰강이되거와 갓다는것으로 조선에서 처음되는 녀학생이 사인교라고 이부인의 집울 차저와 입학을청하는『最初의生徒』라는 장면은 마창의 관중에게 적지안흔 감동을 주엇스며 력사의 추억에 마음을이끄려가게하엿다

(사진상은 야외극에 모여든 관중을 하는 오십년전에 녀학교에 입학하려오는 광경을 연극 한것이 향하야 전철의 두남녀는 비복(婢僕)이요 그다음으로 전복 입은것은 신랑, 그뒤에잇는 녀자가 학교에 입학하려오는 새악씨)

間島共黨上告審

判決은來九月頃?

조선에서 일즉히 보지못하든한꺼번에 십팔명의 대량사형수를 내인간도공산당사건 피고 김응수(金應洙)등 사형수 십팔명과무긔두명, 유긔두명 모다 이십이명에대한 치안유지법 위반및살인죄명에 관한 상고공판은 지나십일일고등법원에서 열리여판여검사인 촌전(村田)검사로부터 상고기각(上告棄却)의견진술이잇슨후 이미 이십여일이나 되나 아직 언도기일조차 결정되지안하야 피고들의가족과 밋일반은 자못 초조한마음으로 긔일을기대리며 판결여하를 주목하고잇는데 이사건은 긔록만 한번읽자하여도 두어달이나 걸리는큰사건이고 또 열여덟명의 생명에 관한사건이니만큼 심리를 신중히 할필요가 잇는관계상 언도는 하긔휴가가지난오는구월중에나 내리리라고한다

府尹의許可를빙자 二個月동안延期

一墓에八圓부터十五圓까지

幽靈의料金을徵收

리태원공동묘지(梨泰院共同墓地)간수장 리홍순(李弘淳)에대한 해등협잡사건은 석간에 이미 보도한바와 가티 룡산서(龍山署)에서 지금 계속해서문초하는한편 사방으로 형사대를 느려노하 그런돈자 검거와 아울러 증거수집에 크게활동을계속하고잇는데 삼십일밤까지 나타난 사실에 의해보건대 리홍순이가 지난번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劃令)발표와 동시유연묘(有緣墓)의 묘주(墓主)들에게경성부윤 일홈으로

『그 공동묘지는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달은데로 이전 개장(改葬)을 하게되엿스니 소화십일년 오월일일 부터 가튼해 유월그믐까지 개장을하라 만약 긔간안에 개장하지 안는때는 우리부청에서 임의로 개장을 집행할터이다。』

하는 개장통지서를 발송하엿스나 거긔에는 단지『개장』운운하는 글시발이적혀 잇슬뿐 본지석간에 보도한바와가티 화장할경우에잇서 어른에게는 매무덤에 삼원 어린이의것은 이원식십전을 내준다는 한등의 표시가 업는니만치 일반 묘주들은 이것을 알길이 업서 더펴노코 그룽지서 바든것만 가지고 리태원공동묘지사무소로 가서 자긔의 소원을 각각 말한데다가 열의 여덟은 거지반 화장하게되는터이라 본시 야심을 가지고 이긔회에 일확천금을 꿈꾸든 리홍순은 때를 맛낫다는드시 일반묘주에게『화장을하려면 홍제원화장장(弘濟院火葬場)의연장과마찬가지인『리태원묘지림시화장장』에서 화장을하는것이 리익을이되리라는고 공규(公規)에 암매한사람들을 감쪽가리속히여가지고 번번히 자기배속에예산해노흔 유령의료금 죽팔원으로부터 십오원까지를 바덧은것이라한다。

그뿐아니라 이사건발생과 함께 일반의 의혹을 한층 사고잇는것이 잇스니 그것은 즉전기와가티 개장통지서를 벌서두달전인 지난사월초순에밧고 사면으로부터 압흘다투어 밀려드러오는 개장신청자들에게 단지 별표와가튼『개장비청구서』(改葬費請求書)만 바더두고는 소위 부윤의 결재라는것을 빙자해서 오늘에까지 차일피일 끄으려오다가 이부정사건이 탄로될려고한 지난이십팔일부터야 개장비지출을 개시하엿다는것이다。

號
請求書
一金
但シ京城府梨泰院共同墓地內撫者管理ニ係ル
亡(　　)墳墓改葬補償金(　　)トシテ
右請求候也
昭和　年　月　日
住所
右
京城府尹 殿
右改葬シタルコトヲ證明ス
第　年
正和 大昭 京城府衛生課長

同所에勤務한同僚 全然不知는疑問

警察은이方面을注目

또한가지는 이번사건의 총참모격인 리홍순이가 룡산서에류치되기전까지 그는소위『개장』주속에대한사무를 자기집이자 그사무소인 가튼장소에서 보아왓고 또지금도 그자리에서 여전히부청원이상명이 눈물사이업시 일을매일가티보고잇는터로 리홍순이가 사천긔나넘는 허다한무덤들의화장신청을밧고 다액의금전을 공연하게바더온것을 어째서 그와함께잇는 다른직원들은 몰랏든가?하는것이다。

어쨋든이번사건은 복마전(伏魔殿)소리를 평소에 드리오든 경성부청의 직원에 관계되엿이니만치 경찰에서도 얼마마한혐증과 상당한자신미레서 신중히 고려에고려를 더하여 이사건에 메스를 들게된것이어서 그결과는주목을 끄을고잇다

그리하여 경찰의 새로운 주목도 다시 으상두가지의문으로 물리여가는동시 금명간 또하지안흔 방면으로 건사은확대되는동시 검거의 불똥도 사면으로 날릴것으로 보인다

金文準氏追悼會

【大阪】민중시보사 주간 김문준(民衆時報社主幹金文準)씨가서거함은 본보에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지난오월 이십구일에 동성구저사아정 구한청년회관(舊韓靑年會館)에서 민중시보사 리신형씨(李信珩)사회사에 김문준씨의 추도회를 개최하엿든바 송종현씨(宋鍾鉉)의 략력보고와 김명식씨(金明植)와 본보대판지국장김광수씨(金光洙)외 다수의 조사와 본사공동아일보사외 각단체 개인의 조전조문끄려이 잇슨후 묵도상로간으로 식으맞치엿스며 유해와비석은 그자친(慈親)이가지고 출발하는 군대환(君代丸)으로 제주도향리로가리라고한다

松峴里日用品市場 店鋪使用認可問題

仁川府民의不平藉藉

【仁川】 부조정리대 수만부민의 만흔후망과 기대중에 건축중인 시내송현리일용품시장은 불원그준공을보게되야 적어도유월중순경에는 개업케되리라전한다 이에 점포는매대(賣台)까지 도합일백이십여개소에 지원자가삼백륙십여명에달하야 실로경쟁의정도의맹렬한 재림전을이키고잇서 일반지원자간에는 인가권을가지고잇는 부당국에대하야 여러가지풍설로인한 주목의초점이되여잇는바 이에모방면에서 내경된바를 탐색하야보건대 시내모모부호의명의와 유력자들의명의로써 제출된인가원에대하야는 점포두개씩이나 인가내정이잇는반면에 즉접 당면한상업자로 생활문제를 걸고 고대하든자에게는 가되지안흘것의 적지안타한다 이것은확정된바는 아니나 방금국 비밀리에 부윤이결재중이라하니 주인할것은업거니와 내정된대로발표된다면 중소상업자의편의를 도모한다든 미명은간곳이업고 몰히여대상업가들마용호하는것에 불과하다하야 벌서부터세간에서는 부민간의불평이 적지안타한다

영터리學校세우고 授業料낙군校長

卅日에는看板까지떼고逃亡

十九名生徒街頭彷徨

부내무교정(武橋町)사십여번지에 잇는 동양무선공과긔술학교(東洋無線工科技術學校)에서는지난여섯일 설비문제로 말미암아 생도가 동요하여 경찰의조정으로 달라자는 생도들의 요구를 전부드러주기로하고 겨우해결되엿는데 그학교교장 김상순(金相淳)씨는 그후경비곤난으로 학교를 계속할수업다하야 생도십구명을 모조구로보리지에 모혀노코 부내동래정(東萊町)에 잇는 조선라디오강습소(講習所)에 그학교를 합병할터이니 그강습소로가라고 권고하엿다고한다 그러나 그강습소는 동양무선공과긔술학교와 가르키는 과목이 달르므로 생도들은 주저하고잇는바 여섯구일 김상순교장은 오월말일까지의 수업료를 바덧스니 어로케 메교하겟다고 메교선언을 하고 삼십일에는 간판까지 모다 떼며 공부하려모힌 생도들은 불안가운데울을 일허버리고 가두에서 방황중이라는데 그들은교장을피해버려서 생도들로안이모사람입애 삼십구원식을 바핫하라고 요구하려하나 그는어대로 도업는교실애모히어 다만애철만을잡고구슬이라한다

賄賂로千圓바더 두警官이半分!

現職警部와巡查部長의疑獄

金密輸事件과는無關

【新義州支局電話】 신의주경사국에서는 삼십일아츰 평양으로부터 압송해온 현순천(順川)경찰서사법주임 김귀조(金基祖)경부와 평남경찰부 김병옥(金炳旭)형사부장을 고등무소에 수용하고 주밀한취조를 진행중인데 그들은 금밀수사건에 관계된것이 아니라 의주(義州)에재는 김장수(金長壽)라는사람에 편록법동【同】경찰서에 잡히게되매 김장수는 지난오월상순 평남경찰부고등계에잇는 김병옥부장에게 돈천원을주며 무사하하여달라고하자 이부탁을바든 김병옥은 그때 대동경찰서사법주임이든 김귀조경부에게말하야 전긔김장수를 석방한다음 도천원을 둘이오백식나누어먹은사실에 어떠한단로되것이라고한다

同點도同點의熱戰 榮冠은再次延專에

普專의至誠도長恨을남기고

全朝鮮籠球大會終幕

中央基督敎靑年會, 朝鮮體育會共同主催의 第六回全朝鮮籠球選手權大會決勝…延專對普專戰은 三十日午後四時부터 青年會館에서行한바 兩軍伯仲之勢로 熱戰을거듭하야 普專의勇壯케하드니 延專은最後의好調를 보이며 四十八對四十四로 宿敵普專을물리치고 連二年優勝하엿다

◇決勝戰

延專48 (21 27 …… 27 17) 44普專

【審判】第一點差로 逃二次敗供의눈물을머금고 오직雪恥의기를 기다리든 延專과宿敵普專과의決戰이라 緊張한場內空氣가場內에넘쳐흐르는가운데戰端은열리엇다

開幕에延專李容勳의 自由投로첫點을 노리호니 二分에 普專崔海龍의野投와 五分에申光浩의 自由投野投로 5…1普專리ー드 七分에延專容勳連續得點하야5…5 同點되니 戰勢는 이로부터 白熱化하다 八分에延專 方應鎬의敏捷한活躍으로11…5延專 一時好調를보이니 이에 鬪志旺盛한 普專軍 速攻으로 內는 緊然하드니 十八分에 또한번 同點되엿다가 前半은 …17로 延專 리ー드한채 타임아웃되다 後半戰에 드러가 一分에 普專 李在?의野投成功과 崔海龍의 自由投成功으로 23…23普專리ー드하엿다가 延專의 鬼籠的 活躍으로 洪文吉, 李容勳, 金應信 速다라 多數得點하야 七分까지에 37…23으로 延專은 普專리ー드하니 一時苦戰에빠진 普專은 攻勢에 轉換의機會를 엇지못하고 防備에만全力하드니 攻戰을 다시하야 猛烈히 延專陣을 壓迫하야 文範, 申光浩, 海龍 在崙의活躍으로45…44로스코어를接近케하드니 普專의逆襲을 許지안코 延專軍은 金應信의自由投와 金信의 싸이드숏으로 四十八對四十四의 스코어를내이고 우리籠球界의 模範的게임은 延專을告하니 延專陣營에 歡聲은터지나고 잇섯다 (게임四十分間)

(寫眞은 優勝한 延專選手들)

反	前	後	【延專】		【普專】	前	後	反
0	3	10	洪文吉	F	申光浩	5	2	3
1	5	4	李容勳	F	朴東濬	2	2	1
				F	洪[illegible]	0	1	1
1	6	1	金應信	C	崔海龍	8	10	3
1	4	6	方元淳	G	辛在崙	0	10	2
2	3	6	金應信	G	李文範	3	2	3
5	21	27				17	27	13

籠球代表들의 送別戰은中止

世界學生籠球代表一行은 出征途中 京城에 下車하야 告別의 一戰을 行할豫定이든바 日本體協의 反對로 不得已中止하기로 되엿스며 宋, 李, 張三君만은六月十六日에 東京을떠나 京城에 들렷다가 二十一日에 京城驛을 通過하는 本隊와함께 出征할터이라한다

遞信11 殖銀8

京城實業野球리ー그第十日의殖銀對遞信第一回戰은 三十日午後三時半부터 京城球場에서 佐田(球) 中村 津島 平井(壘)四氏 審判下에 遞信先攻으로 開始된바 八對八同點되여 延長戰에드러가 第十回初에 遞信軍一擧三點을 獲得하야 結局十一對八로 遞信軍이先勝하엿다

◇投捕=(遞信)中島-古賀 (殖銀)吉本-小笠原

遞	2	0	0	1	3	0	1	1	0	3	
殖	0	0	0	7	0	0	0	0	1	0	8…11

韓在弘君表彰

美展에彫刻入選

이번조선미술전람회조각부(朝鮮美術展覽會彫刻部)에 당선된 한재홍(韓在弘)군은 부내삼각정한영고등학원(漢英高等學院)야간고보과(夜間高普科)일학년에 재학중인데 나제는모회사에근무하면서도 여가를타서 조각에정성을다 밧처오든중 이번에당선의영예를 획득한것인데 동학원에서는 삼십일밤칠시에 동군의 당선축하를겸한표창식을 거행하게되엿다

三萬圓窃盜犯

長崎서京城온듯

장기현경찰부로부터 이십구일에 경기도경찰부로 삼만이천원절도범인을 붓잡아달라는 기별이왓다 지난사월 십일일로부터 십이일까지하로밤 사이에 장기시 축정(築町)에잇는 십팔은행(十八銀行)에서는 금고안에 너허둔 현금 삼만이천원을 도적마젓는데 여태까지 범인을 차젓스나 전연 알길이 업는중 흑여나조선안에서 그런 눈치가 보이는 혐의자가 잇거든 붓잡아달라는 것이다

朝鮮서건너간돈 滿洲서건너온돈

조선 각지의 우편국과 우편소에서 취급한것으로 사월한달 동안 만주(滿洲)로간 우편환전은 오십일만구천오십팔원이며만주로부터 조선으로온것은 팔십일만삼천팔백오원인데 서로제하면 삼십일만이천팔백 사십칠원이만주에서 조선으로써 드러온 세움이라한다

보음모양 젊어지는약 가이자ー!

▼다음가트신 분은 가이자ー를쓰시오

가이자ー의효능

빈혈증(貧血症)신경쇠약(神經衰弱)로쇠(老衰)근기상실(根氣喪失)영양부족(榮養不足)

성적신경쇠약(性的神經衰弱)보혈강장제(補血强壯劑)약은환약이오동서양정제약, 약갑십원, 오원, 삼원짜리 중세가심하면십원짜리를쓰시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지방송료선금십오전대금인환삼십오전

림질 대하 방광병중엔 구로벨이 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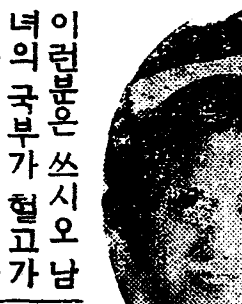
▼다음가튼증세에는 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의효능

남녀만급성림질(男女慢急性淋疾)대하증(淋毒菌起因帶下症)뇨도염(尿道炎)고환염(睾丸炎)(산증)방광염(膀胱炎)섭호선염(攝護腺炎)녀자오좀소태(女子消渴)관절염(關節炎)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란소염(卵巢炎)라팔관염(喇叭管炎)림독성제증(其他淋毒性諸症)

약갑 특제구원, 만성용오원, 급성용오원, 부인용오원이나 삼원이나 오종소태에 삼원이오 일주일분이오 위장을상하지아니합니다 약은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당일로비밀히보냄니다 지방송료는 선금이면십오전대금인환이면삼십오전이오

매독엔 푸로다ー 가제일이오



이런분은 쓰시오 남녀의국부가 헐고가려운데 눈이희미하고팔다리가쑤시고목이쟁기고 머리가빠지며 여긔저긔종기가나고 코가헐고 멍울이슨데는 푸로다ー를쓰시오

푸로다ー의효능

매독(梅毒)、창독(瘡毒)、태독(胎毒)습독(濕毒)、선천매독(先天梅毒)、감창(疳瘡)、후천매독(後天梅毒)매독성류마지쓰(梅毒性僂麻質斯)약은환약이오구감이나거나위장을안상합니다 약갑 칠원、오원、삼원 오래되고중한분은보통병과다르니칠원짜리를쓰시오 약은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 비밀히 보내드림니다 지방송료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이면삼십오전이오

만일본주약이든지 이상어쓰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로 백에한번에이거나 망고와 틀니는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흠결잇거든 약을돌려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습니다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金錫永齒科醫 五日間無料施療

【仁川】 경성치과(京齒) 의학사 김석영(金錫永)씨는 인천서 치과의원을 개업한지 만장년이되나니 라 때마침 삼사일은 창치(蟲齒)데—일으로 이긔회를 긔렴하기위하야 유월일일부터 오일간 본보독자에한하야 무료치료를하기로되엇는데 유허비독한독자에게는그간이마뭉한후에도 계속치료를하기로되엇다한다

躍進하는西部京城
人口벌서六萬突破
密度로보아서는孔德町方面이第一
그러나施設은全無한慘狀

경성부 구역확장이래 용산출장소(龍山出張所) 관내의 호수와 인구에 대하여는 그동안 조사중에 잇든바 요지음 그 정확한 통계를 알게되엇는데 즉 전부터 나려오든 구역 마흔일곱동리의 호수는 이만구천백열일곱집에 그인구 칠만사천두명—그중 사나이가 삼만칠천륙백설혼한명에 녀자가 삼만륙천삼백일흔한명—이든것이 지난번새로 편입된 구역 스물여섯동리에서 이만일천사백여든다섯집에 그인구 륙마일천팔백열다섯명—그중 사나이가 삼만일천백여덟명에 녀자가 삼만칠백일흔두명—이나 더 늘엇으로 그전구역호수는 새로 편입된구역보담 호수에 잇서칠천륙백설흔두집 인구에잇서 일만이천백여든일곱명이각각만흔집이다

이러틋 거지반이나 불은호수와 인구중에서 제일만흔수를포용하고잇는 동리가 공덕정(孔德町)의 네구역인데 그일구가일천이백설흔한집에 삼천칠백설흔한명 이구가일천사백마흔집에사천마흔여섯명 삼구가 일천사백여든여덟집에 사천마흔명 그리고 사구가 이천일흔한집에 오천팔백아흔명으로 총호수륙천이백설흔집에 총인구 일마칠천팔륙백스물여섯명이다

다음으로는 신공덕정(新孔德町)의구역이니 일구가 일천백일흔아홉집에 삼천사백일곱명 이구가 일천이백열네집에 삼천삼백일흔일곱명으로 그총호수는 이천사백아흔두집에 총인구가륙천칠백여든여섯명이다

이상 공덕정, 신공덕정 두동리의호수와 인구를합치면 호수가 팔천륙백스물두집에 인구가 이마사천사백열두명인즉 호수로 보아 총수 오만륙백두집에 비해서 륙분의하나가 좀못되고 인구로보아 총수 십삼만오천팔백열일곱명에 비해서 오분의한하가 좀못되는폭인즉 인구밀도(密度)가 얼마나「이쪽으로—이쪽으로—」하고 밀리여 드는지를 엿볼수잇는 동시에 앞으로 부당국에서 이쪽주민들을 위해서 어떠시설을 얼마나 하여줄는지? 주목되여잇다한다

人口는日復日激增 늘는것住宅難뿐
府로編入된後急激한發展에 京南一帶거품景氣

【京南】 금춘경성부로 편입되이후 경남일대는 각방면으로비약적발전을 현저히보혀주고잇는데 그중 번저인구의격증으로 주택난을이루고잇다한다 현재이곳으로말하면 지방파로존한편이나 본시건축물은 전인구에비하야 엄청나게적어서 포화중을늣겨가며 좁은집속에서지나오는사람들이 태반이나되든데 또한 경성부가실현되면서부터는 만흔부자들이 이곳으로진출하야 그들의토지와주택을 몰부침으로 성향히 매매를부침으로 당장에호구십의 이끌인그들은 또한 면문더받는데 만흔하야 팔고나선 다시자그들이사려할때는 집들이업서서돈을 을쥐고도 풍찬로숙들을하고잇는등의입대주택난을 이루고잇다한다

本報開城支局後援 自轉車大會盛況
一、二等에入賞한選手

【開城】 송도자전거선수회(松都自轉車選手會)주최와 본보개성지국후원하에 전선남녀자전거선수대회는 예정대로 지난이십칠일부터 삼일간 송도고보『그라운드』에서 오전열시부터 노픈포죽소리와함께 시작되엿다 사리원 경성, 함흥, 평양등 각지선수일백여오십명이 참가한가운데 량일간의 각종경기는 무사히 마치고 삼일되는 최후결승일에는일류선수백주(一〇〇週)경기로 우승은 평양(平壤)이냐? 사리원(沙里院)이냐? 하고 일반은일초를 다토아 관중의 마음을 조리다가 결국 평양 김운학(金雲鶴)군이 일착 우승권을 잡고말엇섯다한다

競技成績

▲一流決勝(一〇〇週) 一等 金雲鶴(平壤)二等 朴成烈(沙里院)三等 金平洞(沙里院)

▲二流決勝(七〇週) 一等 韓道楨(咸興)二等 金基奉(水原)三等 金台煥(京城)

▲三流決勝(五〇週) 一等 金台煥(京城)二等 金鍾成(京城)三等 韓沃鉉(首興)

▲女流決勝(一五週) 一等 韓春花(平壤)二等 孫英淑(大田)三等 宋金蓮(長淵)

日曜講話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解放의첫거름 朴潤濟 氏
午後八時 體驗과宗敎 金泰亨 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裂花의處年 李萬卿 氏
午後八時 上帝는누구의하나님이시뇨 鍾根英 氏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裂花의因果 金永燮 氏
午後八時 未定 金明善 氏
◇尙洞敎會 午前十一時 智慧잇는사람 卞鴻圭 氏
午後八時 未定
◇阿峴監理敎會 午前十一時 崔秩禮 氏
聖經은世界的書籍 許曄 氏
午後八時半 基督敎神學에對하야
◇漢川監理敎會 午前十一時 金洙喆 氏
예수의福音 盧景準 氏
午後八時 未定 李基台 氏
◇南大門敎會 午前十一時 崇高한使命에獻한스데반 白炳旻 氏
午後八時 未定
◇三淸洞敎會 午前十一時 崔明鎬 氏
미동으로미동에 吳斗煥 氏
午後八時 안디옥교회를배호자 許殷 氏

土地의埋立을따라 俗化된"악박골"물
住民은上水道敷設을陳情

수백년의 력사를가진『악박골』약물터가 한낫길가의 우물이되고말엇다 이십구일정오경에 시내서대문서에는 현저정(峴底町)주민대표 박은석(朴殷錫)씨이하 십여명이 상수도문제로 진정하여왓는데 악박골약물터부근 약오천평이 작년 십이월에 관동정(館洞町)에 잇는 영천토지경영회사(靈泉土地經營會社)로부터 남대문통(南大通)오정목 태상상회(富來祥商會)에 매도된후부터 상상회에서는 사철하순부터 매립(埋立)공사를 시작하야 약물터는 한낫 길가의 우물이되고 말엇다 현재는 부근 이백여집여호의 중요음수지인 전크우물이 공사관계로 정심시간과 저녁때바게 사용할수업게되엿슴으로 물긔근으로 무한한곤랑을당하는주민은 경찰에 진정하야 서대문형무소까지온 수도관에서 물을끄을수잇도록 알선하여달라하엿는데 경찰측에서도 현장조사를한결과 약물터우물에서는 종래의 반도못나오는 수량임으로 선처하겟다고 언명한후 도라가다한다 그리고 예날자취는 차저볼수도업는 새우물터에는 정심때와 저녁에는 와연한 남녀러가려 되여잇다

◇貞陵里寺 午前十一時 維摩의風格 朴潤濟 氏

運動競技

第十一回專門校 庭球大會續報
法專이依然優勢

第十一回 朝鮮專門學校庭球大會第一日은 三十日午前十時半부터 京城運動場庭球코—트에서열린바 昨報以後의 戰績은 다음과가트며 法專軍이 優勢를 보이고잇다

◇第一日各校戰績
法專 二戰二勝
高商 二戰二勝
醫專 三戰二勝一敗
齒專 二戰一勝一敗
高工 二戰二敗
高農 三戰三敗

【醫專】10…18【法專】勝
○(曾我 孫泳洙)4…3(具田 李丙浩)×
○(北原 垣內)4…3(李容國 洪近澤)×
×(宋錫英 山口)2…4(辛昌範 諸川)○
×(益田 頭田)0…4(李輔虎 諸德烈)○
×(恒吉 杉)0…4(砂金 朴永壽)○
【高農】12…19【醫專】勝
×(加藤 米林)3…4(桂元珪 吉田)○
×(南定謙 李範淳)3…4(朴三烈 飛永)○
×(倡 李養浩)0…4(鈴木 盧鍾泰)○
○(田代 青木)4…3(吳奉熙 吉井)×
×(田中 村原)2…4(細田 金準培)○
【醫專】勝19…10【高農】
○(恒吉 杉)4…3(倡 李養浩)×
○(益田 頭田)4…1(加藤 米林)×
○(北原 垣內)4…0(田中 佐藤)×
×(宋錫英 山口)3…4(南定謙 李範淳)○
○(曾我 孫泳洙)4…2(田代 青木)×

第十四回A마라손 鄭壽吉君優勝
所要時間43分15秒

서울陸上主催의 第十四回A마라손大會는 三十日午後三時十五分부터 光化門通四街路를 出發點으로 漢江人道橋北端까지의八哩往復코—스에서 열리엇는데 이날參加選手는 開城을 爲始하야 十四名에 達하바 大接戰끄테 鄭壽吉君(白光)이 所要時間 四十三分十五秒로 優勝하엿스며 以下戰績은다음과가다

1、鄭壽吉(白 光)四三分一五秒
2、黎斗赫(京 城)四三分二八秒
3、李康明(京 城)四四分七秒
4、高鎭奎(開 城)四五分四四秒
5、申德根(京 城)四六分一一秒
6、張德榮(白 馬)四六分一五秒
7、金壽峰(徽 新)四六分一八秒
8、洪世仁(京 城)四八分二秒
9、李承業(京 城)四八分四五秒
10、金正集(往十里)四九分三二秒

專門校陸聯에서 大邱醫專參加是非

【平壤】 平壤醫專 陸上競技部에서는 毎年 京城醫專과 對抗試合을 擧行하여 왓는데 이에 大邱醫專을 加하여 三校對抗試合으로 하자는 議論을 朝鮮專門學校 陸上競技聯盟과 京城 大邱兩醫專競技部에서 提出되여 平壤醫專에서도 이問題를中心으로 討議中이든바 大邱醫專이加盟되면 二年에一回式은 大邱에遠征치안흘수업고 大邱까지遠征은經濟上困難이不可能한理由로 絶對反對를表明하엿다

萬一平壤醫專의 大邱醫專加入反對가 容納되지안는때에는 聯盟에서 脫退하거로될것이어서 一般의注目處가되여잇다

日本兩職業野球團 六月二十日에來征

朝鮮新聞社에서는 今般 東京세네타스와 大阪타이거스兩職業野球團을 招聘하기로되엿는데 六月廿、廿一兩日間 兩雄은마저京城運動場에서 四回戰을 行할豫定인바 그相對될은 京城實業野球聯盟의 選拔팀이라고한다

씨름硏究會開催

中央基督敎靑年會에서는 朝鮮固有의 運動競技인 씨름技術의向上發展과 體育的 價値를 增進케하기爲하야 朝鮮씨름硏究會를 六月二日午後八時부터 同會館內에서 열터이라고한다

今日의運動

▲庭球=專門校大會第二日 午前十時 京城運動場코—트
▲硬式庭球=第二回朝鮮對抗戰第二日 午後三時 龍山鐵道코—트
▲野球=京城實業野球 第十一日 殖銀對遞信第二回戰(午後一時) 府廳對京電第二回戰(午後四時) 京城球場
▲卓球=第一回敎職員大會 午前九時 城大醫學部에서
▲競漕=第二回보—트레—스 午前九時 漢江人道橋上流코—스에서

女性
六月增頁號
三十一日發賣

갈수록자미잇고아름다운잡지

內容中에서큰題目만추리면

▲幼稚園선생님은무엇을하고잇나 ▲在京女性團體의事業은무엇인가 ▲내안해내남편의흠점 ▲안해는그집안의女神 ▲母性으로의女性 李光洙 ▲내가잇지못하는女人 ▲美人과 그女性 ▲女性月評等滿載

잡지(녀성)은 실비만해도 정가의십전이 넘으나 참말로본사의 희생적사업의하나로 조선의 녀성잡지다운 녀성잡지를 맨들기위하야 아프로 시긔를따라 헐신페—지를느리기로하고 우선 이달부터 만흔페—지를 느려보앗습니다 사진이며 긔타 얼마나 용단적인 편습인가 보십시요 이잡지를읽고모두새녀성이됩시다

畵報 젊음도한때、六月 自然과朝鮮女性、新映畵、마즈르카 상미는웨붉은가

小說과이야기
情夫…李石薰
長編小說 列車…李曙鄕
瀕死의白鳥……咸大勳
戀愛法典三十一條
映畵解說 鄕愁…CM生
美術家와裁縫女
社交舞蹈와音樂…金管
挿畵 安夕影 金熊超
表紙畵 安碩柱

당신이 녀성이면 당신들을예찬하고 당신들의생활은 이럿습니다—하고보혀드리는이잡지를 안보시고조선녀성이라하지못합니다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 振替京城五八七八)

定價十錢 送料一錢

仁丹의 煉齒磨

香、味는참으로近代人이즐기는
清掃、美白作用은徹底的
健齒効果는……勿論
百퍼—센트
이煉齒磨

仁丹齒磨에는 齒科醫가推奬하는 仁丹の齒ブラシ를 使用하시라!

仁丹本舖 森下博營業所

產業

變態的氣象으로 白魚에 大異變
名產地平南北에는 廻遊치안코 群山、木浦地方에 出現

變態氣象은 朝鮮水產界의 大宗인 鰮의 漁期에 一大混亂을 招來하얏슴을 비롯하야 鯖、鰆漁에도 變調를 招來하고잇는데 다시 平南北의 名物인 白魚에도 異變을 招來하얏다 即白魚는 平南北에 五、六月頃 廻遊하는것이 例인바 今年은 漁期에이르러도 廻遊가 거이 업고 一方 이에 反하야 產地가아닌 群山 木浦地方에 五月上旬부터 下旬에亘하야 來遊가잇서 相當한量의 漁獲이 잇섯스나 이處理施設이업서 空然히 腐敗식힌狀況이엇다

樹苗過剩念慮 生產을統制
忠北서當業者에注意

【淸州】忠北道內의 明春造林豫定樹苗는 約四百萬本에 不過하는데 道內에잇는 百十五名의養苗業者와 一千五十四個所의 愛林契等에 養苗하는 總數는 約九百萬本에 達하야 事實上 消化하기가 困難함으로 生產超過를 憂慮하야 미리 四百萬本은 前記 各業者에게 配當하야 樹苗生產의 統制를 加하고 自意로 增產하야노은 樹苗의 消化는 道로는 責任을지지안켓다는 內容을 미리그들 當事者들에게 通告하고 注意를 식히엿다한다

慶北道外出漁 年額六十萬圓

漁村更生의 參考資料로 慶南道當局에서는 道內漁業者로 道外에 出漁하는 漁船의 種類와 隻數에 對하야 調査한바잇섯는데 그 結果에 依하면 統營의 二百二十九隻 南海의百二十二隻을 最高로 計八百四十四隻 四千二百五十一名이 出漁하야 漁村에 가저오는돈이 年額五十八萬一千七百八十圓이라는 巨額에 達하고잇는것이 判明되엇다 이것을 漁業別로 보면 延繩三百七十三隻 流刺網百六十五隻이 가장만흐며 出漁한方面은 全南、慶北 江原、對馬島를비롯하야 멀리黃海 中國에까지 達하고잇다 그런데 以上調査에는 漏落된것도 잇서 實際는以上보다 더만흘것으로 豫想된다

◇移秧開始◇ 【鐵原】歲月의 흐름을따라 節은바귀어 高原地帶인 鐵原地方도 時期에 맛추어 비도 適當히 나리고 日氣도 따뜻하야 農作은 順調로 進行되고잇다 그런데今年에는 特히 農事始初부터 一般農村婦女들이 前에드문現象으로 들에 나와서 勞働하는 新風이생기어 注目을 끄을고잇다 지난二十六日부터는 移秧이開始되엇는데 이移秧부터 婦女들의 活動은 볼만하다 寫眞은婦女들의 移秧光景

南朝鮮配電統制
廿九社를六社로合同
來年에는一社로大合同完成

南朝鮮電氣統制에 對하야 今井電氣課長은 如左히 말하엿다

寧越火力電氣가 來年度부터 發電을 開始키로 되엇슴으로 이것을 機會로 南朝鮮電氣會社는 料金에 懸隔이잇서 이것을 統制하고 同一電源에 依하야 南朝鮮六道에 平均히 供給하야電力을 普及케할려인데 現在狀況으로는 이것이 不可能함으로統制하는터이다 現在의 電氣會社는 慶南、慶北、全南北、忠南北等 小會社가 散在하야 六道에 二十九社가잇서 理想으로서는 一會社로서同一事業을 經營하여야하나 技術上及 經營上 見地로 最初부터 一會社로하기는 不可能함으로 먼저二十九社를 六會社로合同케할터인데 그것은 京電、大興電氣(十社合同) 大田電氣(三社合同) 天安電氣(六社合同) 南朝鮮電氣、木浦電氣(四社合同)이다 第一次合同으로進捗되어 거의 事實上完成되엿더로 天安電氣의六社合同과 如함은 이미假契約을 締結하얏다 第一次合同은 今年內에完成될려이오 繼續하야此等의 六社를一社로한 大合同이 來年에入할 豫定으로 進捗되는모양으로서 各社의 比率問題等은 今年內에 開始케될것갓다 寧越로부터의 電力供給開始는일러도來年九月 늣지면 十一月부터로 其能力은 最初五萬키로에 將來十五萬키로이다 大合同이完成되면 資本金은 二千三百萬圓인데 三千萬圓의 會社로될것이다 最近傳하는 重役問題와 如한은 會社의比率이 決定되지안함으로 問題가안되며 社長의 官吏退職就任은 업스리라고생각한다

〃정어리〃도먹게될가?
食糧用"밀"製造를研究
釜山水試에서新規로試驗計畫

漁獲一億圓을 超過하는 鰮의 製造加工業으로서는 現在 魚油와 魚肥外 一兩年來 家畜飼料인 퀵쉬、밀로 製造되고잇는바 今後 脫脂、脫臭에 成功하면 一般食料用으로 使用될 可能性이 잇슴으로 總督府釜山水產試驗에서는 十一年度의 新規試驗으로 이食糧用밀의 製造試驗을 하기로되엇다 이것이 成功되면食糧問題上 劃期的重大貢獻을 齎來하게될것으로 注目되고잇다

堅固한〃雲門釜〃
二百年間傳授되어오는技巧로製出
釜鼎界에燦然一異彩

炊飯用의 [illegible]로 著名한 淸道郡雲門面은 淸道古刹 雲門寺에 數町相距한 新院洞을 비롯하야 [illegible]、芳[illegible]等 數三村에서 製造하는 工業生產의 逸品으로 地方特產中에서 最高의 地位를 占하야 需用家에게 愛用되고잇다 老人들의 傳하는 말에依하면 製釜創始年代가 距今 約二百年을 算하고잇서 由來의 技術와 傳授經驗이 자못 [illegible]을 極하야 只今에는 雲門式釜의 特有한 評와 [illegible]를 博하야 販賣市場에 進出하면 商界人氣를 獨占하는 感이잇다 그러나 商品一般이 [illegible]로 優良品과아울너 [illegible]品이 粗製品과 가리[illegible]物界에서도 이러한 雲門品을본 [illegible]이 競爭에일[illegible]하야 外形上[illegible]이 업는雲門釜가 一般品과 混同도 기수워 매우不利한 [illegible]로 되여잇다 淳朴한 村老들이 다만 개의 眞品을 求하려고 七、八十里遠距을 [illegible]하고 [illegible]로드러감을 보면 이 釜品의 特異性과 雲門式이 얼마나 一般의 [illegible]을 밧고잇슴을 알기에 넉넉한일이다 北으로 [illegible]市場을 中心으로 而來[illegible]品에 對하야 斷然優勢를 保持하면서 各地로 搬出하나니 그 [illegible]이 [illegible]하야 五十年以上 百年까지 使用할수잇는데 이에 따라 價格도 一般品의 約三倍의 高價를 示하야 大 約十圓內外 中七、八圓 小 五、六圓이 普通一個의 市價이나 時期에 따라 高下의 變動이 잇다 [illegible] 이에 [illegible]하야 品中에도 上品은 [illegible]하면 할수록 漆黑色 光澤이 나고 맛그러워 [illegible]의 愛着를 밧기에 [illegible]하다

[illegible]은 아직 手工業的 樣式을 [illegible]하야 [illegible]期가되면 그때 農民들은 갑작이 [illegible]으로 [illegible]하야 버린다 [illegible]가는 [illegible]에서 [illegible]은 火爐의 [illegible]보고 「잘되엿다」「[illegible]엿다」는 [illegible]의 一種의 判斷을 내리기도하고 或은 全體一樣의 成績如何를 [illegible]에 맛겨버리기도한다 그러하야 [illegible] 近代的 [illegible]을 [illegible]할수업는 [illegible] 素朴한 工作過程인것이다 그러나 [illegible] 三[illegible]民이 年一萬二千圓의 大中小釜를 製造하야 九萬六千餘圓의 [illegible]을 보고잇스니 雲門釜가 一[illegible]界에 一大異彩를 [illegible]하는 特殊地位를 占有하고잇슴은 勿論 今後 이를 [illegible]하는 또한 久遠한 [illegible]과 함께 [illegible] 發達이 [illegible]하여 곤임이 업스리라고 생각된다

清道特產 淸道支局 一記者

全滿鐵道時間改正

【奉天二十九日發同盟】九月에斷行되는 全滿鐵道의 全面的時間改正에對하야는 滿鐵을 비롯하야 鐵路總局 北朝鮮鐵道에서統裁研究中인데 案의 大綱이決定되엇슴으로 六月五、六兩日 五相間에서 全滿鐵道時間改正協議會를 開催하고 相互間 案을提供하야 協議하기로되바 그改正에잇서 鐵路總局案은 左와 如하다

一、滿鐵、朝鮮、北朝鮮、北寧各線과의 緊密한 連絡을 圖할일

二、新線과 既定線과의 圓滑한 連絡을 圖할일

三、聯絡狀態가 許하는限 最大限度의 스피-드업을 圖할일

四、地方情勢에 鑑하야 로-카르列車의 增發을 行할일

五、貨物輸送의 圓滑을 圖할일

▲旅客輸送에 對하야는

一、大連哈爾濱間 二往復으로할일

二、奉天、山海關間도 一列車增發

三、新京、淸津間 二列車의 스피-드化를 圖하며 또一列車의 增發을 圖할일

四、四平街齊齊哈爾間에 一列車增發

五、賓州、賓綏兩線에 로-카루列車를 運轉하다

六、全線에 亘하야 一割、二割程度의 스피-드化를 行할일

工業補助 四萬一千圓

十一年度의 總督府工業補助는總計 四萬一千圓으로 其中 一萬一千圓은 十一共同作業場에 交付하고 二萬圓이 工場補助로六工場에 補助되기로 決定되엇는데 補助工場、補助金額은 如左하다

東洋製絲	四〇〇〇圓
朝鮮紡織	四〇〇〇
東洋製針	[illegible]
江原[illegible]	二五〇〇
竹中化學所	三一〇〇
朝鮮[illegible]	七〇〇

忠北서春蠶을掃立
販賣期를考慮하야

從來 春蠶掃立時日은 各郡蠶種에서 그地方의 當時氣候等狀況을 보아서 掃立期日을 決定하여오던바 掃立期는 山間部와 平地部와에 多少差異는잇스나 各郡이 大體로近似한 時日에 掃立하기때문에 自然 繭을出廻도 一時에 殺到하야 最盛期에는 出荷繭이 殺到 만어 蠶共同販賣業者의 圓滑을 缺하는同時에 乾繭能力이 이에 相伴치못하기때문에 乾繭이 不充分하야 繭質을 害하는 일이 不少함으로 이狀態를 改善하기 爲하야 忠北道에서는今春蠶부터 掃立時日을 郡別로 [illegible] 業者의 狀況에만 依하지안코 蠶의 共同販賣期間中에는 各販賣所가 [illegible]하는 同時에 管內에서 現在使用하고잇는 乾燥能力을 調査하야 出廻數量을 乾燥能力以下로하야 乾燥處理에 支障이업게하도록 各郡에 掃立時日을 統制하기로되엿는데 이施設은 全朝鮮에서 처음 보는 忠淸北道의 劃期的計畫으로 그結果가 매우 期待되고잇는터이다

그런데 今年에는 지난 十六日을 비롯하야 [illegible]을 來二十七日까지로하고 [illegible]잇는 掃立을 하도록 하얏는데 今春 掃立豫定數는 四萬四千枚로 前年보다 五 [illegible] 分散量의增加이며 掃立期는 例年에 比하야 約三、四日 遲延되고잇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二二九五七	金銀鑛	京畿道利川郡[illegible]水面 靑山面漣川郡官仁面	五月五日	高陽郡[illegible]面 代表者 坡州郡[illegible]面 [illegible]季川 [illegible]陽郡[illegible]面 李元載
二二九五八	同	全北茂朱郡[illegible]川面 慶北金泉郡[illegible]項面	同	京城府永樂町 中川湊
二二九五九	同	咸南安邊郡新茅面	同	元川府[illegible]石洞 代表者 白[illegible]軒 淮陽郡蘭谷面 金寶龍
二二九六〇	同	黃海道延白郡雲山面	同六日	京城府[illegible]信町 張俊英
二二九六一	金鑛	全南順天郡外西面	同	釜山府大[illegible]通 [illegible]越惣太郎
二二九六二	金銀鑛	平北熙川郡西面	同	京城府[illegible]齊町 朴春琴
二二九六三	同	京畿安城郡大德面	同	安城郡大德面 代表者 宋[illegible]仁鉉 天安郡成歡面 吳亮憲
二二九六四	同	同抱川郡永北面	同	[illegible]川郡永北面 代表者 李[illegible]珪 京城府[illegible]町 全南煥
二二九六五	同	同漣川郡南面	同七日	京城府西大門町 韓弼德
二二九六六	同	平北朔州郡朔州面 九曲面	同	[illegible]郡[illegible]邑 代表者 中村直三郎 同上下面 植田勳
二二九六七	高嶺土	平南中和郡東頭面 大同郡栗里面	同	奉天千代田通 代表者 今里多一 同 勝山信三 同江島町 濱岡八郞
二二九六八	金銀鑛	江原洪川郡斗村面 乃村面	同	金堤郡金堤邑 代表者 張泰洙 高敞郡富安面 張來洙 金堤郡月村面 張用洙
二二九六九	同	慶北[illegible]德郡柄谷面	同	[illegible]德郡[illegible]德面 代表者 李富弘 同 金景守
二二九七〇	同	忠南瑞山郡聖淵面 音岩面	同	瑞山郡浮石面 崔[illegible]煥

◇共同鑛業代表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九八八	平北寧邊郡北新峴面	五月三日	代表者를同野多一로改定함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四四六	全南谷城郡玉果面	五月二日	金容柏任意脫退함
一二三三三	江原春川郡北山面	同	金鍾翰任意脫退함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八一七五	忠北淸州郡南一面 琅城面	五月二十七日	取消
九〇二七	全南海南郡峽谷面	同	同
一〇〇三九	同花山面	同	同
一〇三三九	黃海信川郡弓興面	同	同
九五〇九	同延白郡海月面	同	同
八九九七	江原淮陽郡長楊面 蘭谷面	同	同
九七八三	忠北鎭川郡萬升面 梨月面	同	同

取消但鑛業目的의範圍內에서存續함

砂防林地帶의 利用時代가到來
總督府서利用策講究

朝鮮의 砂防事業은 大正十一年以降 이미六萬町步의 施業을보앗는데 施業이미 十五年乃至十年을經過한 地帶의砂防林은 林地로 利用時代에入하야 此地帶의 利用更生策을 講究할必要가 잇슴으로 總督府林政課에서는

一、砂防林의 最善利用方法

二、農家의燃料問題解決

三、砂防林에對한 施業方法

四、綠肥採取問題

이各項에亘하야 調查를實施하기로되엇다

日用商品市況

卅日의海產物市況은如左하다

▲明太 保合

乾明太는 依然 北海產의 入荷가만코 朝鮮內產의 入荷는 不振狀態인바 實行이相當하야 市勢는 保合狀態인데 今日 市勢는 한짝(二十[illegible])에對하야 上品 二十三圓으로부터 下等品은 二十圓하는것이잇다

그런데 乾明太는 產地의在荷가 거의 消盡되고잇슴으로 今後市勢는 오르게 되리라고한다

▲조긔 低落

조긔는 產地의 漁況이 良好하야 入荷가 豐富하며 實行도相當하야 今日市勢는 한께미(十尾)에對하야 二十五錢 乃至 三十錢가량인데 依然 產地의 漁獲이 豐富하니만큼 今後市勢는 低落되리라고한다

▲미역 保合

미역은 아즉 新藿의 出廻가적어서 市場에서 實買되는것으로 말하면 그市勢는 한조(二十닙)에 對하야 二圓五十錢 乃至三圓四十錢인데 來月 二十日頃부터는 新藿의 本格的 出廻를보게될것으로 先低가 豫想되는터이다

▲大口魚 不變

乾大口魚는 入荷도 相當하며 實行도 良好하야 자못 活況을呈하고잇는바 今日市勢는 每斤에 二十五錢가량인데 今後市勢도當分間 保合이 繼續되리라고한다

▲메르치 保合

메르치는 來月에야 그의 本格的 入荷를 볼모양인데 아즉은 入荷 實行共히 不振狀態이다今日市勢는 一貫에對하야 一圓九十錢가량이다

工業化하게된 石炭液化工業
世界主要國의現狀

最近世界化學工業界에 큰話題가되어잇는것에 石炭液化工業問題가잇다 石油資源이 缺乏한日本에서는 石油國策과 國防强化의 兩面에서 새로 注意를 喚起하고잇다 이石炭液化에 依한合成油의 製出은 各國 就中 獨、英、佛과如히 油源이 缺乏한나라가 石油代用燃料로 眞摯한研究를 繼續하야 그試驗管中의反應作用을 現實로 工業化하려는것으로 이工業化의最高位를 占한나라는 化學國獨逸로 斷然優秀한 成績을 擧하고잇다 日本에서는 德山의 海軍燃料廠、日鐵의 八幡製鐵所研究所、滿鐵三菱燃料部等이 모다 多年研究하고잇다

石炭 液化工業은 果然獨立工業으로 採算이 可能한가 엇던가 이를 前提로 世界各國의[illegible]界를 [illegible]하야 보기로한다 獨先第一은 獨逸의 液化工業인데 現在 그規模에잇서 最大를 자랑하는것은 이-게-파르벤·인더스트리-·루-나會社 俗稱이-·게-會社로 同社의合成油年產額은 約三十萬噸 그製法은 褐炭을 原料로하는 그合成揮發油를

生產 하고잇는바 이를中軸로 포-렌에 水素添加工場을 建設한 부라코-르·엔진株式會社가잇다 이는 前記이-·게-의 씨스템을 그대로 採用하고 약다베르과如한도 目下 急히 工場建設을 準備中인데 이바겐도라-하·벤진株式會社가 모다 建設計畫中인 情勢이어서 現代獨逸化學界最近의 趨勢는 石炭液化의 工業化에 奔忙한터

이는 當로 獨逸燃料界의 問題이라할 地域的極小部分의것이 아니오 獨逸과同樣 油源의缺乏에 苦悶하는 英國도 또한當局이 石炭液化工業에 着眼하야現在임피리얼·케미칼·인더스추리會社가 비-밍감에 工場을 建設하고 瀝靑炭을 原料로 이에 코레오소-트及 低溫타-르에 水素添加를하는 方法으로 年產約十萬噸이라고 公表되엇다 如何한 石炭液化工業은獨英의

企業 化를 契機로 佛國은 二工場을 建設하고 小國匈牙利쫓차 모든 不利한 條件을 甘受하면서 熱心히 代用燃料의 研究를 進行하야 多大한 犧牲을 무릅스고 二小工場을建設하야 歐洲各國이 모다 代用燃料製出에 邁進하고잇는 現狀이다 今日에잇서서는 그代用燃料로서의 石炭液化가 可能하냐엇더냐의 問題보다도 엇더케하면 工業化할수잇는가 即 엇더케하면 生產原價를 低下할수잇는가 當面의問題로되어잇다

歐洲 各國이 如斯히 代用燃料에 全力을 傾注하는 所以는 이제새삼스러히 說明할것도 업시 油源缺乏에 基因하는것으로油源이 豐富한 米國은 比較的 이問題를 輕視하고잇슴을보아도 充分히 此間의 事情을窺知할수잇슬것이다 如何間 石炭液化工業化는 各國이 各其 獨特한 製出技術에 依하야 하고잇는바 特히 獨、佛間의 傳統的對立色彩가

燃料 問題에도 反映되야 石炭液化工業化의 實際問題까지도 猛烈한 競爭을 開始하고잇는것가티 보임은 그派生的現象이라고 할가 以上은 現代歐洲各國의 石炭液化工業問題의 槪要인바 이事業의 企業化에 對한經濟的價值는 各國工場이 모다그 秘密을 嚴秘에 付하고 잇슴으로 個別的 工場設備費、生產費等의 正確한것은 明記할수업스나 大體工場設備費는 獨逸約二千八百九十萬馬克、英國約[illegible]四萬一千三百萬磅으로 되어잇고 그生產費는 一日 타-르五十噸을

處理 하는 까스製造에 必要한 工場의分을 除하고 約三百萬馬克(十五萬磅)百五十噸의境遇는 八百萬馬克(四十萬磅)三百噸處理의 境遇는 一千五百萬馬克(七十五萬磅)로 어느境遇에나 그러하지만 本工業은 特히 資本增加에 正比例하야 加速度的으로生產高가增大하야감을알수잇다 이는 石炭液化事業이 小資本으로는 到底合成油原價가 노파짐에 依하야

結局 市場實價가 高價로되어 他生產品과競爭 할수업게되는點으로 大資本을 要함은勿論이고 國家의法的乃至는 物的後援이업는限 小資本企業은 絕對로 不可能하다할것이다

또 이工業을 當初 獨逸에서 始作한때는 直接石炭에서 合成油를 製出하는 方法을 採用하얏스나石炭그物件에 含有되어잇는 硫酸窒素 特히

灰分 의 含有量이 만흠으로 그成績이 조치못하야 이로 英國의 임피리얼·케미칼·인더스추리社와 如함은 로-렘메리치아·카-보니제이숀會社에 對하야 液狀炭化水素의 長期購入契約을 締結한 事實에依하야서도 石炭直接液化法이 有利하다고는 할수업는 一證左가 될것이다 그러면 日本의 石炭液化研究의現狀은 어떠한가

日本의 石炭液化研究의 程度는 獨逸만은못하나 英國보다는 낫다 그工業化에關하야서는

滿鐵 이 德山의 海軍燃料廠과 共同으로 硏究中이든바이지음 成案을어더 撫順에 工場建設에 着手하기로되엇다 그事業費는 一千四百萬圓으로 十一年度에 四百萬圓 十二年度에一千萬圓의 豫算을 計上하야 十三年六月에 完成될려이다 이와 前後하야 八幡製鐵所式石炭液化法採用의 滿洲合成化工業會社(資本金五百萬圓半額拂込)가 滿洲四平街에 設立되게되어 年產 一萬一千餘噸의 合成揮發油其他의

製出 에 從事한다 또 德山燃料廠에서도 近近 數百萬圓을 投하야 石炭液化工場을 設置하기로 決定하야 日本의 石炭液化研究라는것은 벌서 昨日의 일이오 今日以後는 그工業化를 經濟的으로 企圖하는 段階에까지 發達하얏다

이리하야 獨英兩國에서도 每年 多額의 政府補助金交付를 밧고잇는 現狀이므로 石炭液化工業將來의

問題 는 이經濟的不合理性을 如何히 調和식힐가함에잇다 이러한 經濟的見地에서 그將來에 만흔 示唆를 주면서 滿洲에 二工場이 建設되려하는것이다 石炭液化工業이 採算上如何한 點이 不合理한가 여러가지 論議가 잇슬터이나 그 一例를 들면 原料로서의 石炭이 英國等에 比하야 高價함도 原因일것이다 이原料高는 엇더케할수업다하면 液化工業上 絕對로 必要한 水素原價를 技術的으로 低下하는外

方法 이 업슴으로 世界各國이 모다 低廉한 水素製出에 非常한 苦心을한 結果 一時는 噸當七、八百圓에서 一千圓갓가히 걸리든 水素가 今日에는英國이 約三百三十圓 日本에서는 九州의 某工場이 約四百四十圓으로 製出한다 이點 英國이나은듯하나 實際는 英國의 石炭價額이 日本보다 相當히 低廉함에 基因하는것이다

그러면 이水素까스製出에 엇더한方法이 잇는가하면 (一)水素의電氣分解 (二)코-크스에高度로 加熱하야 까스發生하고이를 分解하는 水成까스法 (三)骸炭까스의 水素利用法等이잇다

水素 電氣分解法의 缺點은 經濟的採算上非常히 不利한것으로 그理由는 水素電氣分解는水素一立方米突製出에 要하는電力六키로와트로하야 電力料가 키로當約五厘로하야도 三錢이되다 電力料가 恒久不變한다면 이러한 價格으로 供給하야서는

電力 會社가 採算이안되고 그러하고 發電所를 設置한다면 莫大한 設備費를 要하야 結果에잇서 水素一立方米突의 單價가 노파짐으로 이를 繼續하기爲하야 今日에는 水成까스法이나 알모니아合成에 依한 水素製出을하고잇다

八幡製鐵所研究所의 第四分室 高壓水素添加實驗室에서는 黑井技師가 主任이되야 前後七個年에 亘한 研究結果 相當히

低廉 하게 水素를 製出할수잇다는데 이것이 事實이라면 水素製出法上에 劃期的의것이라할것이다

今日 日本에잇서서는 燃料國策樹立上 이石炭液化研究及 그工業化를 漸次當業者間에서 부르짓게되엇는데 滿鐵、德山海軍燃料廠、商工省八幡各燃料研究所、三菱燃料部等은 이것이 燃料界에 及하는 重大性에 鑑하야一齊히 研究와 實驗에 着手하얏다 各研究所 모다

合成 揮發油製造에 이르기까지의 푸로세스를 嚴秘에付하고잇슴으로 讀者에게 數字는 發表할수업다

如何間 이研究의 成果가採算이되게쯤되어 前述한바와가티 撫順、四平街에 二工場設置의 具體的計畫의 發表를보게되엇다 要컨대 日本의 石炭液化事業이 研究의時代를 脫出하야 獨立工業化하게쯤되엇다。

黃·昏 【99】
韓雪野 作 / 安夕影 畫

기로(岐路) (六)

「왓다 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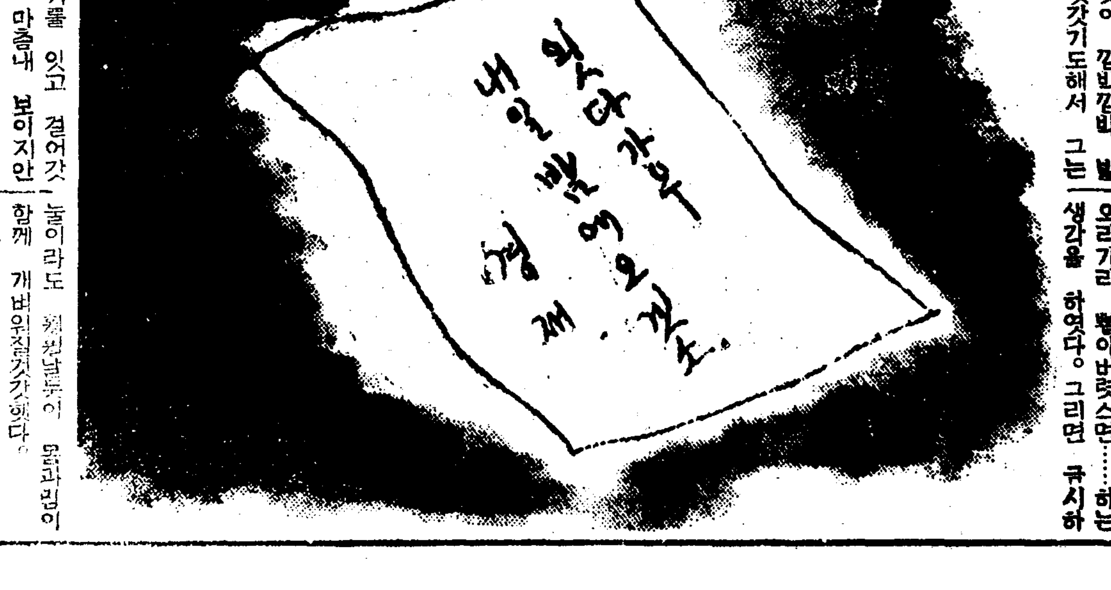
내일밤에 오겟소」

주인에 들어와보니 책상우에 이러케 갈겨쓴 글ㅅ발이 노혀잇다。어김업는 경재의 필적이다。

려순은 다시 한번 그쪽지를 읽어보며 좀더 일직 돌아왓슬걸……하는 생각을 하엿다。그리자 아까 길에서하든 생각은 간데업시 사라저가고 그대신 경재에게 대한 애착이 조곰씩 조곰씩 되살아왓다。

그는 얼뜻 팔목시계를 보며 곳다시 주인집을 나섯다。

경재가 바루 그근방을 근닐고 잇는것만 가태서 희미한어둠속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려보앗스나 그는 보이지안핫다。보이지안는만치 맘은 더조려낫다。금시 뒤에서『요-려순이!』하고 어깨를 개벼게 때릴것갓기도하고 저-편의 전등ㅅ불이 지금 바루 경재가 지나가는것을 보앗다는듯이 깜박깜박 발길을 호리는것갓기도해서 그는 한참동안 자기를 잇고 걸어갓스나 경재는 마츰내 보이지안혓다。



그리하야 다시 주인으로 돌아온 그는 경재가 서노코간 쪽지를 단정히 책상우에 내려노코 우두머니 고개를 숙인채 책상아페 물어안저서 힘써 아무생각도 하지안흐려하엿다。

그러나 뜻과는 딴판으로 무슨생각인지도 알수업는 번거러운생각이 다사스러 꼬리를 물고 맴을·돈다。

그는 무거운머리를 락 쏘다버리듯이 두팔을 벌개로 책상우에 업드렷다 그래도 생각은 여전히 머츨줄을 몰랐다。

얼마후에 그는 이불을 만쓰고 자리에 들어누엇다

그래도 오고가는 갓가근 공상은 끈치지안핫다 책상에 업되렷들동안은 그래도 다소 큰기가 오는듯하엿는데 자리에 눕고보니 되려 정신이 마룩마룩해진다。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해면이면 거푸 세여보앗다 그래도 잠은 오지안헛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가롭은 이슬한방울이 놀달부터 머리우에 떠러저서 머리로부터 발끗까지 죽 퍼저가는것을 생각하엿다 전에는 그러케생각하면 그퍼지는계어서 퍼저가는 이슬과가티 오는게어시 잠이 와젓스나 이날밤은 어해지 그러케 되지안헛다。

그리하야 그는 결국 생각이 한재가근 올대로 처다 오너라……하롯이 아무생각이나 한부로 막 버티어엇다。기젓 생각하노라면 생각에 지처서 잠이 오고야 말터라고 생각햇든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잠은 오지안헛다。

그는 책을 펴서 바루 눈아페 노앗다。원하 읽고십지도안엇스나 강히 읽어내려가노라면 담무서념줄도 못가서 무엇을 읽엇는지 전후의 련락이 끈허저버리고 글ㅅ줄이 지렁이가리 꿈틀거리기도 하고 글자가 자각각 제멋대로 춤추기도 한다。

그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씻다。이불속은 어드웟스나、물ㅅ벗헤서보다도 생각은 더똑똑히떠온다。경재의 우울한 얼굴이눈에 선해진다。그리고 그보다더 한층 우울한자기의얼굴이、마치 다른사람을 바라보듯이 뚜렷하게 제눈에 비치어온다。그는 몬족、자기의머리에서 경재의거림자를、그리고 사랑이라는생각을 오리가리 뽑아버렷스면……하는 생각을 하엿다。그러면 [illegible] 놀이라도 해본듯이 몸과맘이 함께 개비워질것가티하다。그러나 그것은 될수업는 일이엇다。이리궁굴고 저리궁굴어보아도 여전히 몸과맘은 괴로울뿐이엇다。

『대체 무엇이 사람을 이러케 괴롭히는가?』

번연히 아는일이언만 그는멧번이든 이러케 제맘에 물엇다 물어보아야 씨연한 대답이 나올리는 업섯다。갑갑한 일이엇다。

그는 가까스루 마음을 까래안처가지고 한참실히 제몸을도리켜보앗다。그러나 암만 도라보아야 이제 새삼스레 제몸을 어찌해낼 도리는 업는듯하엿다

그는 너무도 지나치게 경재에게 먼저버린 제몸을 스스로 피나도록 채직해주고도 십엇고 까무라치도록 실컷 울어주고도 십헛다

(나를 이러케 괴롭게 만든장본은 결국 나자신이 아닌가? 제손으로 이일을 제몰르다니……!기름을 지고 불로 뛰어가는셈이지!)

그는 속으로 여러케 생각하다가 마츰내 소스라처 이러낫다。

그러나 가슴이 울적거려고 눈이 펑-돌아가서 한참 가만히 안저서 그것을 진정시켯고 잇섯다。

밤은 몹시 고요해젓다。